

다 나음을 입으니라

사회 : 각 기관 회장

찬 송 가

96장 예수님을 누구신가

대 표 기 도

회원 중에서

성 경
(다 같 이)

사도행전 5:12-16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1:9)"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능력이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권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16:17~18)."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축사와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아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14). 둘째, 귀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너무 큼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 속에는 고통받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주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는 일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포로 되고 눌린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길 소망합니다.

적 용

1.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 입니까?
2.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이번 주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인가요?

찬 송 가

중 보 기 도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개인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1. 교회를 위한 중보
2. 선교회를 위한 중보 (임원, 모임을 위하여)
3. 개인을 위한 중보

주 기 도 문

광 고

다 같 이

사 회 자